

# “활 시위 힘껏 당기는 맛, 해보면 푹~ 빠집니다”

## 국궁 지킴이 4대째...광주 관덕정 김석제 고문

“국궁은 과거 상류층이 주로 즐기던 종목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생활체육이 됐지만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할아버지부터 아들까지 4대에 걸쳐 국궁을 지켜왔는데, 청마 기운 가득한 갑오년 설날을 맞아 더 많은 사람들이 국궁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광주시 남구 사동 관덕정(觀德亭)에서 만난 김석제(67) 고문은 인터넷 내내 국궁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반세기 넘도록 전통방식 그대로 국궁을 만들던 손은 굳은살로 투박해졌지만 활대를 어루만지는 손길만큼은 섬세하기 이를 데 없었다.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이곳 국궁에는 100여 명의 회원들이 이른 아침부터 활 시위를 당기고 있다.

국궁장에서는 오랜기간 활동하며 그곳을 대표할 수 있는 이를 가리켜 사두(射頭)라고 부른다. 관덕정 사두를 역임하다 최근 후배에게 자리를 내주고 고문을 맡고 있는 그는 국궁의 매력을 묻자 해보면 알게 될 것이라 자신있게 답했다.

“국궁장에 오는 분들은 5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합니다. 골프나 테니스를 하다가 오

신분들이 많은데 만족도가 훨씬 높습니다. 제자리에 가만히 선 채로 활을 쏘는 동작이 반복되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보기 힘들거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온 힘을 다하지 않으면 활 시위를 당길 수도 없습니다.”

국궁장은 활을 쏘는 사대(射臺)부터 과녁까지 거리가 145m로 양궁 장거리(90m)보다 멀다. 그렇기 때문에 과녁 크기가 가로·세로 각각 2m·2.65m로 양궁(전체 지름 1.2m, 10점 지름 12.2cm)보다 크지만 표적에 닿는 것도 쉽지 않다.

어깨 너비로 다리를 벌리고 허리를 곧게 편 채 숨을 깊게 들이마신다. 왼팔로 활대를 잡고 호흡을 가다듬은 채 오른손으로 시위를 오른쪽 어깨까지 당긴 후 놓으면 된다. 사두의 설명은 간단명료했다. 하지만 국궁을 처음 잡아본 30대 기자는 팔과 다리가 후들거려서 시위를 끝까지 당기지도 못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신경을 집중해야 활을 쏠 수 있다는 설명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졌다. 실제 처음 활을 잡아 과녁을 맞추기까지 개인차가 있지만 수개월이 소요된다고 한다.

“국궁은 사대에 올라 다섯 발을 쏘고 내려오는데 이를 ‘1순’이라고 부른다. 다섯 발을

쫓아 모두 맞추면 ‘접장’이라고 한다. 활 실력에 따른 단도 정해졌다. 구순(45발)을 쫓아 25발 이상 명중시키면 초단, 28발 이상은 2단, 29발 이상은 3단이다. 최고 10단까지 있으며 45발을 맞춰야 한다. 이 중 31발 이상 맞춘 5단부터 ‘명궁’이라고 불린다.

52년째 국궁을 하고 있는 김 고문은 지난 1991년 37발을 맞춰 8단이다. 왜 10단까지 도전하지 않는냐는 질문에 그는 활을 쏘는 자체가 즐겁기 때문에 단수에 연연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하지만 과거 수상실적은 화려했다.

지난 1987년 전주국궁운동장에서 열린 전주대사습놀이에서 국궁부분 우승을 비롯해 대한궁도협회 전국궁도대회 1위(2003)등 쉴 수 없는 대회에서 수상했다. 요즘은 활을 쏘는 것보다 만드는 것에 치중하고 있다며 사대에 오르길 사양하는 그에게 ‘고수’의 실력을 직접 보고 싶다고 요청했다. 어렵게 오른 사대에서 그는 5발 중 4발을 명중 시키며 녹슬지 않은 실력을 보여줬다. 사대에서 내려온 그는 다시 한번 국궁의 장점을 언급했다.

“바탕나무와 물소불, 소힘줄, 민어 부레 등으로 만든 우리나라 전통 활은 크기가 작지만 가볍고 사정거리가 500m에 달하니



다. 특히 활을 쏘는 충격이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일을 하지 않고 평생 국

궁에만 전념했고 이제는 아들에게 국궁을 물려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활이 가진 매력 때문입니다. 앞으로 제 체력이 허락하는

날까지 활을 만들어 국궁문화를 지키고 싶습니다.”

/글·사진=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 백제라이온스클럽, 요양병원 어르신들과 ‘설 나눔’

백제라이온스클럽(회장 박창순·광주소방항공대장) 회원 42명은 설 명절을 앞둔 지난 27일 광주 남구 송하동 효다움 요양병원을 찾아 사랑의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은 최영호 남구청장과 백제라이온스 클럽 회원들이 일일 중인 어르신 420여 명에게 떡국과 과일, 음료를 전달했다.

박창순 대장은 지난 1981년부터 현재까지 헬기조종사로 33년째 근무하며 응급환자 등 350여 명의 인명을 구조했다. 또한 소방공무원으로는 처음으로 지난 2013년 백제라이온스클럽 신입 회장에 취임해 이웃사랑을 실천해왔다.

박 대장은 “설 명절은 가족이 함께 모이는 즐거운 시간인데 외롭게 보내는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과 소외된 이웃을 돕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세열기자 hot@

## ‘사랑의 온도탑’ 100도 돌파...33억원 모금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웃돕기 모금실적을 나타내는 ‘사랑의 온도탑’이 28일 100도를 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20일 캠페인을 시작한 지 70일 만이다.

모금회는 이날 오전 현재 모금액이 32억9283만 원으로 집계돼 모금 목표액 32억 원을 넘었으며 사랑의 온도탑 수온은 103도를 가리키고 있다고 전했다.

농성역 광장에 세워진 온도탑은 올해 캠페인 모금목표액인 32억 원의 1%에 해당하는 3200만 원이 모금될 때마다 수온주가 1도씩 올라가 목표액이 달성되면 100도가 된다. 지난해 캠페인은 25억8000만 원을 목표로 31억 1000만 원을 모금해 120.5%를 기록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 인사

### ◆광주시

◇5급 승진 ▲문화수도정책관실 김복수 ▲총무과 김대정 ▲교통정책과 김성민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김영희 ▲문화예술진흥과 김오숙 ▲창조도시정책기획관실 문기희 ▲상수도사업본부 박승국 ▲투자유치지원관실 박한웅 ▲시민협력관실 배현숙 ▲경제산업정책관실 손환환 ▲도시계획과 신동하 ▲인권담당관실 유근중 ▲대변인실 이보근 ▲문화수도정책관실 이순호 ▲일자리창출과 이승규 ▲기업지원과 정현규 ▲교통정책과 최경화 ▲사회복지과 최관국 ▲의회사무처 최옥진 ▲시민협력관실 허경 ▲세정담당관실 김동현 ▲정보화담당관실 김성배 ▲시민협력관실 심인섭 ▲시립도서관 백호승 ▲사회복지과 임영희 ▲건설행정과 서영균 ▲감사관실 오창림 ▲전략산업과 서경식 ▲생명농업과 김기섭 ▲건강정책과 임진석 ▲민생사법경찰단 송진남 ▲도시계획과 강웅 ▲기후변화대응과 김형곤 ▲창조도시정책기획관실 양영식 ▲종합건설본부 장봉관 ▲기업지원과 안주현 ▲도로과 양병욱 ▲건축주택과 김윤오 ▲토지정보과 김형석 ▲전략산업과 김기호 ▲재해예방과 이승립 ▲상수도사업본부 송양석

◇6급 승진 ▲도시계획과 강형웅 ▲총무과 김상률 ▲환경정책과 김수미 ▲기업지원과 박교정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박선미 ▲예산담당관실 박종남 ▲상수도사업본부 신수미 ▲노인장애인복지과 안철승 ▲문화수도정책관실 오미정 ▲도시계획과 유진숙 ▲교통정책과 윤미월 ▲창조도시정책기획관실 이시현 ▲대변인실 이영철 ▲시민협력관실 이형호 ▲인권담당관실 임영옥 ▲

문화수도정책관실 정남주 ▲생태하천수질과 조동식 ▲문화산업과 조명주 ▲예산담당관실 주보성 ▲체육진흥과 지승주 ▲총무과 차윤중 ▲투자유치지원관실 최권태 ▲창조도시정책기획관실 최병재 ▲세정담당관실 강병성 ▲의회사무처 모성훈 ▲대변인실 유선현 ▲총무과 이문진 ▲시민협력관실 이현경 ▲시립도서관 김혜숙 ▲시립도서관 심정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문귀현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유지영 ▲총무과 김선형 ▲상수도사업본부 나명수 ▲건설행정과 이병남 ▲교통안전과 차중훈 ▲전략산업과 문준희 ▲U대회지원과 문형표 ▲전략산업과 박세라 ▲생명농업과 노형근 ▲민생사법경찰단 장명화 ▲식물관련과 강병철 ▲상수도사업본부 황해숙 ▲U대회지원과 박주연 ▲환경정책과 김광기 ▲생태하천수질과 김경수 ▲생태하천수질과 김상빈 ▲교통안전과 김태성 ▲감사관실 유충석 ▲도시디자인과 유현오 ▲공원녹지와 한기창 ▲문화수도정책관실 장철균 ▲토지정보과 국윤숙 ▲정보화담당관실 강승태 ▲시민협력관실 박경수 ▲안전총괄과 영명환 ▲지방공무원교육원 설재은 ▲회계과 정경택 ▲문화예술회관 김재환

◇7급 승진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김남하 ▲U대회조직위원회 김우담 ▲종합건설본부 김정현 ▲시립미술관 김대연 ▲문화예술회관 박상조 ▲시립미술관 박수영 ▲하계U대회조직위원회 백수자 ▲상수도사업본부 오은미 ▲상수도사업본부 유연아 ▲교육지원과 유지혜 ▲상수도사업본부 윤해영 ▲상수도사업본부 이민실 ▲도시재생과 이영진 ▲국제협력과 조상철 ▲안전총괄과 홍지연 ▲

시립도서관 오재근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한성철 ▲여성발전센터 장한나 ▲여성발전센터 주연정 ▲상수도사업본부 조준환 ▲상수도사업본부 김용호 ▲문화예술회관 변희숙 ▲상수도사업본부 류영삼 ▲상수도사업본부 장길식 ▲보건환경연구원 장대관 ▲종합건설본부 이종락 ▲건강정책과 김수희 ▲상수도사업본부 윤정호 ▲상수도사업본부 장인태 ▲종합건설본부 김효석 ▲도시철도건설본부 장계식 ▲종합건설본부 정철웅 ▲회계과 김상훈 ▲하계U대회조직위원회 손규룡 ▲종합건설본부 소광영

◇8급 승진 ▲무등산생태문화관리사무소 고희면 ▲회계과 김강일 ▲상수도사업본부 김정호 ▲투자유치지원사무소 박재준 ▲종합건설본부 박현규 ▲여성발전센터 배성민 ▲상수도사업본부 이희성 ▲상수도사업본부 채승학 ▲종합건설본부 김봉현

◆2015광주U대회 조직위원회  
 ◇1급 ▲기획본부장 박인우 ▲지원본부장 박창기 ▲문화행사본부장 박남주  
 ◇2급 ▲기획부장 이동진 ▲재정물자부장 이석균 ▲인력지원본부장 황화성 ▲식음료숙박부장 최효남 ▲의무도핑부장 박태순 ▲경기기획부장 김갑수 ▲개폐회식부장 조병만 ▲국제부장 배미경 ▲의전부장 김에리 ▲서울사무소장 조윤식

◆광주 남구  
 ◇4급 승진 ▲이태호 ▲최병태  
 ◇5급 승진 ▲윤의남 ▲윤준진 ▲최인기 ▲선향숙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84 FAX 062-222-4938, 222-4918

### 동창회

▲목포고 제5회 동창회(회장 이규중) 월례회=2월 5일(수) 오후 6시 금강산식당 062-224-0808.

### 종친회

▲진주 강씨 광주전남총회(회장 강원구)=2월4일(화) 오전 9시30분 진주강씨총회관 출발 062-228-3368.

### 알림

▲광주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주간지 서비스(주 5일운영) 회원 정신건강상담서비스 무료제공 및 만성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례 관리(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062-233-0468.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상담=알코올 외에도 인터넷, 도박, 니코틴,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가족의 회복을 위해 무료 상담 및 정보제공, 교육을 실시. 062-

526-3370.

▲이동학대예방을 위한 상담·신고 전화 운영=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학대와 방임을 말한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아동학대와 관련된 상담 및 신고전화 1577-1391은 24시간 운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미혼부모상담 및 임양상담 24시간, 위탁가정 상담, 임양가족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임양가족 자조모임 운영 062-222-9349.  
 ▲대한사회복지회 우리집=미혼부모상담 및 미혼모자가가족복지시설

입소 안내, 학생미혼모 단기위탁교육기관으로 학력 인정, 무료의료지원 및 숙식보호 062-232-1313.

▲“금영건설팀” 재권·재무·재테크 무료 출장 상담=다중 채무·개인회생 및 파산 안내, 사업자 및 개인 채권 서류 검토 작성 대행, 재테크 절세 방법 상담 010-6392-4585.

▲장애아동통합교육보조원사업단=저소득층 주민에게 특수교육실무사의 기술 교육 및 공동체 교육을 통해 양질의 전문 인력을 배출하여 경제적인 자립 기회 제공, 광주 서구지역 초·중·고등학교의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 적절한 교육 및 학습환경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장애아 및 장애아동의 삶의 질 향상 기여.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2-3029.

### 모집

▲농성문화의 집 오전오야 수강생=균형있는 몸매와 정신을 맑게 깨우

는 요가 관심있는 분이시면 누구나 환영(매주 화·금, 오전 9시 30분~10시30분) 062-362-2072.

▲광주·전남 영화·드라마 엑스트라 및 보조출연자=영화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누구나 지원 가능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 광주광역시지회 062-674-4008~9.

▲팔공문화 아카데미(원장 조대호)=만화기초수업 초등학생부·중학생부·고등학생부·일반부·취미반 수시모집(원장님 1:1개인지도), 남구 방림동 샘심원 3거리 070-4065-5054, 010-8947-3006.

▲살레시안 가족합창단원 모집(단장 나금주, 지휘 김철수)=살레시오 초·중·고 졸업자 및 그 가족이며, 합창에 관심이 있는 분이든 누구나 환영(부부 중 한분이라도 동문이면 됨), 연습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30분 상무중학교(운천지수지 열) 010-3404-3712(단장).

▲무등 예술종합 평생교육원(국비지원 100%)=교사를 위한 반주법, 리

더럽과 스피치, 뮤지컬 탭댄스(일반부·자격증반), 음악치료 심리 상담사 자격증반, 미술치료 심리상담사 자격증반, 북구 무안2동 무등파크 1차 상가 2층 062-269-6669, 010-3606-0230.

▲블루오션 아카데미=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학문교류성격의 아카데미. 열정적이고 학구적인 1961년생 남자(소띠) 약간병을 지원받음. 010-7744-6511.

▲광주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 주간지 서비스=회원 정신건강상담 서비스 무료제공 및 만성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례관리(가정방문) 제공(주 5일 운영) 062-233-0468.

▲광주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 자원봉사자=음악(악기)에 재능이 있는 자원봉사자 모집, 최소 6개월, 주 1회 2시간 가능하신분. 062-233-0468.

▲아시아실버밴드 오케스트라 회원=관악기(플루트, 클라리넷, 색소폰 등) 중 택1 개인지도 및 그룹·합주 지도, 대상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주

민등특상 북구 거주자) 중 전국가구 평균소득 120%(4인 가족기준소득 568만3000원) 이하 062-226-2030, 010-4906-8904.

▲다음카페-침뎀 내(?)찾기 학교 무료 교육=우울증, 불면증, 두통, 불안, 이명, 환청, 환상, 강박관념, 대인공포증, 가위눌림, 약물, 자살충동, 신내림, 귀신들림, 정신질환, 신경성질환, 만성난치·금연금주, 악습·가

족갈등, 비만·체질교정, 불생불사, 8고해탈, 진리체득, 학습력강화, 최면, 원인을 알 수없는 병들 010-6609-9068.

### 부음

▲김양권씨 별세 보연·승연 씨 부친상=발인 30일(목)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b>101호 故이문자 님(여/70세)</b> 子/子婦: 최남동 女: 최진숙, 정.진희 ●호 실: 101호 ●장 지: 영락공원	<b>102호 故정영순 님(여/84세)</b> 子/子婦: 정인수/최인숙, 민수/김민정 女/婦: 정영희/박동현, 영숙/이갑순 ●호 실: 102호 ●장 지: 영락공원
<b>301호 故고순애 님(여/81세)</b> 子/子婦: 노정환/이금자, 심현/김영숙, 규원/이영희 女/婦: 노숙순, 언희/김기호, 언덕/최성환, 옥남/최신택, 미남/이홍덕	<b>401호 故모선옥 님(남/89세)</b> 子/子婦: 모정환/노경래, 종하, 종의 女/婦: 모한희/도경수, 한진/정정석 未成人: 정순자 ●호 실: 401호 ●장 지: 영락공원

夫喪: 노재구  
 ●호 실: 301호  
 ●장 지: 능주 백암리 선영

●발 인: 1월 29일  
 ●연락처: 227-4385

●발 인: 1월 29일  
 ●연락처: 227-4386

●발 인: 1월 30일  
 ●연락처: 227-4382

孝 金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